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위기대응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형유조선 사고는 발생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발생 시에는 환경오염의 피해가 크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크고 작은 유류유출사고가 연평균 390건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07년 12월 12,547 kL의 대형 기름 유출사고가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하였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대형유조선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국가적인 정책과제로 대두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지역정치권의 대응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즉 지역정치권은 기름유출사고에 대하여 지역에서 발생한 중요한 이슈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지역위기 상황의 대응과정에서 지역의 문제해결 주체 이면서도 문제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지역정치권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공식적인 조직인 지역정치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하였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세력을 통합조정하는 위기관리 역량의 부족이 드러났고, 대선 및 총선 기간 중에 지역적인 위기문제에 대한 공문화 부족, 그

리고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여론을 선도통합하는 역할을 갖는 지역언론의 역할 및 역량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주제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지역정치권, 지역언론, 위기대응

## 1. 서론

1980년도부터 국내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원유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해난사고 방지 시스템이 취약하여 해양유출사고가 연평균 300건 이상 발생하였다. 그 중 유류 및 오염물질 1,000 kL 이상 대형사고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까지 포함하여 그 동안 약 13건이 발생하였고, 모든 대형사고는 유조선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김상진, 2008: 146).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해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서 해상교통량의 밀도가 높고 해상교통의 흐름이 복잡해서 각종 해난사고와 해양오염물질의 불법배출과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이 해역은 50m 내외의 수심에 광대한 간석지가 발달된 전형적인 라이스식 해안으로서 조석간만의 차이가 커서 대규모로

조간대가 발달되고, 어장과 양식장이 많다. 따라서 대형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태안 앞바다에서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15분경 삼성 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의 충돌로 인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기름유출 사고 이후 피해 지역주민들의 좌절과 아픔이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나온 부모들과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박동균, 2008: 25).

대형유조선 사고는 발생빈도는 낮지만 일단 발생시에는 큰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1996년 이후 크고 작은 유류유출사고가 연평균 390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국내 최대 유출량인 12,547 톤의 대형 유류유출사고가 태안군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는 오랜 동안 대형사고가 없어 운항안전에 대한 주의가 느슨한 면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계기로 대형유조선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김상진, 2008: 14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개요와 구조적인 원인, 특징 등을 살펴보고, 이 사고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대응상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와 같은 지역문제의 해결 주체 이면서도 문제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지역정치권의 위기 대응상 문제점<sup>1)</sup>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방법은 기존의 선행 연구논문, 보고서, 일간지 그리고 인터넷 자료조사 등과 같은 문헌조사 위주의 기술적 접근방법을 활

용하였으며, 일부는 재난관리 담당 실무자들과의 면담 조사를 병행하였다.

## II.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개요와 특징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1995년 여수 씨 프린스호 사고 이후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해양오염 사건이다. 이러한 대규모 기름유출사고 인한 생태계 파괴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위기관리 문제점들이 단적으로 노출되었다. 여기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개요와 특징, 사고에 대한 초동대응의 실패 등을 중심으로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 1.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개요

2007년 12월 7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로 한반도가 한창 열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전 매스컴이 대통령 후보자들의 움직임과 선거 캠페인 등을 보도하고 있을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의 예인선이 끌고 가던 대형 크레인이 홍콩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원유 1만 천 톤이 청정바다로 쏟아진 것이다(박동균, 2008: 26). 이 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인 태안 앞바다의 전복, 굴, 바지락 등과 같은 양식 어장은 물론이고, 천연기념물인 신두리 사구 등의 지역이 기름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크게 삼성중공업과 현대 오일뱅크의 안전 불감증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1) 삼성중공업의 안전 불감증

2007년 12월 6일 오후 2시 50분, 삼성중공업의 11,800ton급 해상 크레인과 이를 예인하는 3척의 선

1) 재난관리와 지역정치권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전영평(2004: 154)은 "아직까지 재난관리와 지방정치의 특성을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는 많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특정지방의 정치권력구조가 매우 낙후될 경우 권력 작용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재난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한다.

박으로 이루어진 예인선단이 경상남도 거제를 향해서 인천대교 공사장을 출발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인천 기상대를 통해 항해기간 중 서해 먼 바다의 기상악화가 예보된 상황이었고, 삼성예인선단의 선장들은 항해 기간 동안 일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단하고 있었다.

12월 7일 새벽 3시경 서해에는 초속 10m 이상의 강풍과 3m 이상의 파도가 일었고,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그리고 새벽 5시경, 삼성크레인선단은 예인력을 상실하고 풍랑에 심하게 밀리기 시작했다.

사고당일인 7일 새벽 5시 23분,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관제실은 예인선 2척이 대형 해상 크레인선을 끌고 인근에 정박중이던 유조선에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초단파(VHS) 무선으로 긴급 호출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다. 1분뒤 다시 호출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5시 50분경, 예인선에 설치된 레이더는 유조선과의 충돌을 예측해 경보 사이렌을 울렸지만 예인선단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6시 20분, 관제실은 자칫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가까스로 예인선(삼성T-5호) 선장에게 무선연락 대신 직접 휴대전화를 통해 “전방에 대형 유조선이 있으니 피해서 운항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항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국 46분이 더 흐른 7시 6분, 삼성크레인은 현대오일뱅크의 기름을 실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했다. 이 때까지 삼성크레인 예인선단이 취한 조치라고는 사고 10분 전인 6시 56분에,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게 비켜달라고 무전을 보낸 게 전부였다(염형철, 2008).

삼성이 바다에서의 안전수칙만 준수하였거나 대산 해양청의 경고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예인선단을 피항 시키거나 항해를 중단했다면 기름유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12월 9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은 위험한 운항을 강행했다. 하루 임대료만으로 6천만원이라는 대형크레인의 소유주(삼성)는 ‘해양오

염방지법 상의 항해 금지 규정(5천 만원 미만의 양벌 규정)’에 주의를 두지 않았다.

기름유출 사고 후에도 삼성중공업 측은 ‘해양청의 무선을 받은 적이 없다.’, ‘무선을 받을 당시에는 회항을 시도하고 있었다.’, ‘6시 30분부터 유조선에 이동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비키지 않았다.’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염형철, 2008).

삼성은 기름유출 사고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2008년 1월 22일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냈다. 삼성의 사과가 늦은 점과 천재인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비난이 거셌다. 박재묵(2008: 68)은 “삼성이 검찰수사와 기소를 지켜보기 위해 사과문 발표 시기를 늦추었을 것이다. 미리 잘못을 시인하여 검찰이 일방적 과실로 규정하게 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해석했다.

## 2) 현대오일뱅크의 책임

2007년 12월 6일 오후 7시 18분경, 단일선체 유조선인 홍콩선적 146,800ton급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8km 지점에 닻을 내렸다. 이 장소는 법적으로 정박이 허용된 위치가 아니고, 어민들이 생계활동을 하던 어장이어서 주민들의 무단 정박 항의를 받아오던 곳이었다. 하지만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대산해양청의 양해를 얻어 닻을 내렸고, 현대오일뱅크 유류탱크로 유조선을 운전해 갈 도선사를 기다렸다.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 사고가 나기 한 시간 전 쯤인 6시 9분,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레이더를 통해 예인선단의 접근을 인지했다. 또 항로예상프로그램(CPA)이 삼성크레인이 0.3m 차이 정도를 두고 비켜갈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임을 경보했다. 또 6시 27분, 대산 해양청으로부터 “해상에서 충돌위험이 있으니 즉시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동을 준비하겠다.”는 답변도 했다. 하지만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안전유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 없이 시간을 소비했고, 나중에는 “유조선의 이동 조건이 안 된다. 크레인이 지나고 난 뒤에 이동하겠다.”는 답변을 보낸 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결국 기름유출 사고 당시까지 닻을 올리지도 않았고, 줄을 늘여 뜨려 수십 미터를 움직인 것이 전부였다(엄형철, 2008).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단일선체 유조선'이라는 구조적 문제이다.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박 충돌사고에 따른 해양오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과 같은 국가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앞서 5천톤 이상 단일선체 유조선의 자국영해내 운항을 2005년부터 줄이기 시작하여 2011년 이후에는 금지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단일선체 유조선의 가격이 하락하자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오히려 초대형 단일선체 유조선의 이용을 늘리고 있다. 노진철(2008: 83)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국내 정유사들의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그 만큼 우리 연안 해역에서의 기름유출사고 재발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충돌해서 생긴 구멍은 겨우 30cm 크기 두개, 1m 크기 하나였다. 이중선체 유조선의 외벽과 내벽의 사이 간격이 보통 1-2m 정도임을 감안하면, 뚫힌 크레인과의 충돌로 생긴 구멍이 내벽까지 뚫어 기름을 유출시킬 상황이 아니었다. 1995년 7월 23일 전남 여천군 소리도에서 발생한 씨 프린스호 사고가 단일선체이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는 비난이 있었다(씨 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는 북상하던 제3호 태풍 ‘페이’의 피해를 우려한 유조선이 광양항 호남정유 부두에 접안하여 원유하역 작업중 태풍경보 발령을 받고 하역 작업을 중단하고, 태풍 피항차 출항하여 피항지 물색 중 삼산면 소리도 동방 4.7마일 해상작도에 선미좌현

기관실 부위가 충돌하여 기관정지 및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통신두절 상태에서 위 일시장소에 좌초하면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2년이 지나서 동안 이중선체 이용을 미뤘었던 현대오일뱅크의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이 태안해역 오염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엄형철(2008)은 “우리나라는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입 원유량의 56%인 6천 1백만톤이 단일선체 유조선으로 운송했다. 이는 세계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고(2006년, 한국 173척, 인도 112척, 중국 94척, 일본 35척, 유럽 0, 미국 0), 최근 수년간 단일선체 사용량을 늘려온 유일한 나라였다(2004년 127척, 2005년 155척, 2006년 173척). 한국의 정유회사들이 사상 유래 없는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서도(순이익 합계 2005년 3조3,473억원, 2006년 2조8,519억원), 이들은 수송비용과 선체 개조 비용을 아끼려고 단일선체를 고집하고 있었다(현대오일뱅크 2007년 1/4-3/4 분기 순수익 1,773억원, 이중선체 사용 시 추가 비용 약 50억원 예상). 우리 연안 해역은 이번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생태학적 재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해외시장과 관련된 기업 활동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정책기조에서 여전히 환경보전 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하기 때문”이다(노진철, 2008).

2008년 1월 8일, ‘기름유출 피해에 따른 특별법 제정 여론 수렴회’에 참석한 12명의 위원들은 “정부는 정부기관의 잘못으로 이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피해지역의 피해보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직까지 대국민 사과는 물론 책임공방만을 벌이고 있는 정부 및 삼성과 현대는 각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정부와 삼성, 현대 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반영하듯 수렴회 시작 전부터 1,000여명의 피해주민들의 정부와 삼성 및 현대를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가 펼쳐졌다.

피해지역주민들은 “정부는 유류피해 지역주민의 생계를 책임져라!”는 구호와 함께 “삼성 이견회는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가! 당장 사과해라”고 외치며, 규탄 시위를 이어갔다.

신0 천리포 피해대책위원장은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사고경위를 밝히지 않는 관계당국을 비난하며,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정부 및 대기업은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00 태안군개발위원장도 “특별법(안) 제정이 마치 정부가 피해주민들에게 크게 선심을 쓰는 양 하는데 정부는 이번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00 근흥면 피해대책위원장도 “정부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어 생계곤란에 빠진 주민들에게 선보상을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패널로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이하 민변)을 대표하여 참석한 신인수, 남현우 변호사는 “사고경위조사에 있어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삼성측이 국내의 중량급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항해일지조작 등을 통해 책임한도보상액 수준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지려고 한다. 검찰은 항해일지, 교신내용 등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중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검찰은 이를 인식하고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펼쳐야 한다.”고 규탄하였다. 또한 신인수 변호사도 “정부는 아직까지도 피해보상액이 3,000억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는 오관을 하고 있다. 완전복구, 완전보상, 가해자 무한책임 등의 3원칙에 입각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자료 : 태안신문 홈 페이지).

## 2.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특징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재난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양기근, 2008: 1-16).

첫째, 사고 책임규명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사고발생 과정에서 외국 국적의 유조선(허베이 스피리트호)과 국내 선박(삼성 1호)이 사고 당사자로 연루되었으며, 사고 유발선박과 피해선박의 구분이 모호하여, 사고에 따른 책임분배 및 피해보상 등의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신승용, 2008).

둘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그 위험여파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환경오염은 생태계, 즉 먹이사슬 체계를 파괴시킴으로써 원상회복까지는 상당히 중장기적 기간이 필요하다. 즉, 사고지역인 태안은 지형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큰 자갈, 땀 및 모래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조건대 지역으로 기존의 기름유출사고와는 다른 오염물질의 거동특성과 이에 따른 중장기적 잔류특성이 예상된다. 특히 서해는 다른 해역에 비해 수심이 얇고 해류로 인한 희석자정 능력이 약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해저 잔류 유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지역은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특히 접근이 곤란한 절벽 및 암벽으로 구성된 해안이 많아 방제작업이 어려운 곳이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 잔류 유류오염물질에 따른 생태계 영향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사고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서, 이 지역은 500여 곳에 이르는 수산양식장이 분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면도를 비롯하여 연간 수천만 명이 찾는 유명 해수욕장과 관광위락시설이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해안관광산업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수산양식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관광산업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배상문제가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복

구 및 배상과정에서 수산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양기근, 2008: 16).

넷째, 재난보도의 특징이다. 재난 상황에서 언론은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뉴스 제공과 인근 지역 또는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대민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의 역할을 일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재난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호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난 보도는 그동안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기 보다는 책임자 처벌요구 보도에 중점을 두거나, 피해자 중심의 재난보도 보다는 독자위주의 이벤트성 보도, 현장 취재를 근거로 한 사실위주의 보도 보다는 과장보도, 냉철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 보다는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치우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사후대책의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시간만 흘러가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데 언론의 책임이 있다(박동균, 2008: 25-50).

### III.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 지역 정치권의 대응상 문제점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30만톤 VLCC(대형원유운반선)가 빈번하게 운항하는 해역이다. 따라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기름유출 사고의 발생 개연성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 2007년 12월 7일 7시경 서해 태안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만리포 북서방 10km 해상을 운항 중이던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의 크레인 부선이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 예인장선이 절단되면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표류하다가 대산항에 입항대기 중이던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146,848t급)와 충돌하였다. 이 충돌

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름유출사고 역사상 최대의 규모인 12,547kl의 원유가 허베이 스피리트호로부터 유출되었다. 유출된 기름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을 포함하여 충청남도과 전라남북도 연안 1,052km를 오염시켰고, 어장과 양식장, 해수욕장 등 3만ha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노진철, 2008: 31).

또한, 재난관리의 가장 기본은 사전에 재난을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다. 물론 철저히 대비를 해도 재난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한 시점에 가장 적실성 있는 초동대응이 중요한 것이다.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 방제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발생 3시간 35분이 지난 10시 10분경이었다. 3미터 내의 성난 파도와 10미터 이상의 강풍 속에서 300톤급 규모의 방제정은 초동 대응 조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해양경찰이 보유한 방제선은 300톤급이어서 대형재난에는 한계가 있고, 그나마 악천후에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름유출 사고 직후 구명난 유조선 주변에 오일 펜스를 여러 겹으로 쳐야 하지만 오일펜스는 높은 파도를 적절하게 방어하지 못했다. 구명난 유조선 가까운 곳에서 모아져야 할 기름은 급속도로 바다로 쏟아져 흘러 들어갔고, 그나마 오후가 되면서 기상이 악화돼 오후 5시경엔 모든 해상방제 활동이 중단되었다(박동균, 2008: 30).

당시 해양수산부는 유출된 기름띠가 육지까지 밀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24-36시간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학암포, 천리포 해변에 기름이 밀려들기 시작한 것은 사고 발생 13시간이 지나기 전부터였다. 유출된 기름이 해안에 도착하는 시간 예측이 어긋나면서 재난방제체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방제 당국은 갈피를 못 잡고 당황하기 시작했고, 지역주민들은 아무런 방제장비도 없이 한숨만 쉬었다. 정부의 위기대응 매뉴얼은 실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의 현실과는 달랐다. 현지의 방제선들, 바다에 떠있는 기름을 흡수하는 유흡착기 따위는 방제효과가 없었다. 서해의 양식장들

을 지키기 위해 뒤늦게 수십 km의 오일펜스가 해변에 쳐졌으나, 이 또한 펜스 밑에 설치된 스킵트가 짧아 기름을 막는 데는 쓸모가 없었다(염형철, 2008).

기름유출 방제 대응 중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유조선의 구멍을 48시간이나 방치하면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유조선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형어선을 이용해 수리를 시도하다 두 차례나 실패하고 돌아오기를 연속한 탓이었다.

또한 사고해역에는 6척의 방제정이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에 끊임없이 유화제를 쏟아 분고 있었다. 원래 유화제는 기름을 제거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유화제는 방제 유화제로 기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앉은 기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해양 오염사고는 방제 작업 이후가 더 큰 문제다. 해양 유류오염 방제에 사용되는 유화제에 대한 2차 오염 때문이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에 있어 유화제를 대량 사용하여 응고된 기름덩어리가 사라지지 않고 꽃게·전복 등 바다 밑에서 서식하는 저서생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어민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유화제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태안군 소원면 조00(47)는 “유화제 피해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바다 전역으로 퍼지면서 양식 어장뿐 아니라 바다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며, “사고해역의 내년 작황은 불 보듯 흰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충청남도 이홍집 해양수산과장은 “유출된 기름을 모두 빨아들여 수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현장 상황이 워낙 다급해 일부 유화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12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항공기와 헬기를 동원하여 유처리제를 살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사나흘이 지나면서 방제 물품은 거의 소진되었다. 흡착제는 동이 나서 기름제거 작업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은 현수막을 찢어 걸레를 만들

고, 헌 옷 등으로 기름을 닦아 냈다. 전국에서 몰려온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문제해결의 주체 이면서 중심이 되어야 할 지역정치권의 문제점<sup>2)</sup>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1. 대선 및 총선에 묻힌 지역정치권의 역량 부족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한창 대통령선거운동으로 분주하던 시기에 발생하였다. 또한 연이은 국회의원 선거 기간도 한창 복구 중이던 기간이다. 우리나라 최악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반영하듯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기름유출 사고 최대 피해 지역으로 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등 각 정당들이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만리포 현장에 대책위원회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후보들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만리포 복구현장을 방문해 복구 작업을 펼치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당일에도 투표를 마친 유력 후보들이 태안군을 찾아 복구 작업에 동참하는 등 선거에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초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 다음날부터 아예 발길도 하지 않고 있다고 대표적인 지역언론사인 태안신문에서는 보도했다(태안신문 2007. 12. 27). 가뜩이나 정부가 약속한 각종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자 피해 주민들 사이에는 정치권이 아예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를 있어

2)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전영평(2004: 147-164)은 대구시 지하철 화재사고를 사례로 하여 지방정치권의 대응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에 대한 재난관리를 무력화시킨 대구시 지방정치 특징으로 ① 일당지배구조의 견고성과 배타성 ② 시장 중심의 지배구조와 주변권력의 협력현상 ③ 관료적 권위주의 ④ 관이 주도하는 지역원로정치 ⑤ 시민단체의 활동 한계 ⑥ 일반 시민의 의견수렴 통로 부실 ⑦ 대표 언론의 지역어론 조작 등을 지적하고 있다.

버린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만리포 해수욕장에 컨테이너지만 임시 사무실을 차린 정당은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국민중심당 등 이번 대선에서 3강으로 불리는 정당들이다.



자료: 태안신문(2007.12. 27); <http://www.taeannnews.co.kr>.

<그림 1> 태안신문 보도내용

이런 시점에서 태안신문사 기자가 이들 사무실을 방문 취재하였다(태안신문 2007. 12. 27). 만리포 관광협회 옆에 해변가 도로변 반을 차지하는 컨테이너에 차린 대통합민주신당 사무실은 잠겨 있었고, 사무실 앞은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사무실 안은 방제 장비가 가득 찬 창고로 전락해 있었다.

만리포 해수욕장 오른쪽 공터에 컨테이너와 대형 천막 2개로 지원본부를 차린 한나라당의 경우도 사무실은 잠겨 있고 두 개의 천막에는 장화, 삽, 양동이 등 방제 장비가 가득 쌓인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일부 복구 현장에 방제 용품이 없어 자원봉사자들이 기름 제거 작업을 못하는 곳도 있는데, 이 곳에는 백 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방제 장비가 그냥 방치되고 있었다.

만리포 입구 도로변에 위치한 국민중심당의 경우는

그나마 사무실이 열려 있었으나 당직자나 관련된 사람들은 없고 충남 약사회가 임시 약국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주요 정당들이 자원봉사를 비롯한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하더니 선거가 끝난 날부터 아예 생색내기용 사무실마저 문을 잠가 두는가 하면 이곳에 방제 장비까지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역 주민 0 0 0는 “선거전까지는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처럼 난리를 벌이더니 선거가 끝나니 이제는 논공행상에 눈이 멀었다 발길을 끊어버린 것은 피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홍재표 통합신당 태안지역 지원단장은 “중앙당 차원에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대통합민주신당 뿐으로 매일 의원실에서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자원 봉사를 펼치고 있다”며, “단지 태안군 재난상황실에 자원 봉사 등록을 안 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본인이 사전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고 모든 방제 장비와 식사를 준비해 봉사를 펼치다 보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늘만 해도 정봉주, 박병석, 장영달, 신하균 의원 등이 자원봉사자 200여명과 봉사도 펼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특별법 마련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태안지역 복구와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관계자도 “다른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태안신문 2007. 12. 27).

이러한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권의 태안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 대한 관심이 끊어졌다는 태안신문의 보도 이후 정치권이 다시금 태안 기름유출 현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12월 26일 오전 11시 대통합민주신당은 만리포 재해대책본부에서 오충일 대표, 정세균 태안재해대책위원장, 김효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구호 성금 1억원을 진태구 군수에 전

달했다. 전달식에 이어 의원들과 자원봉사자 등 350여명은 도시락 대신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만리포 해변에 위치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사 먹고 바로 의항리 해수욕장으로 옮겨 오후 늦게까지 기름 띠를 제거하는 자원봉사를 펼쳤다. 한나라당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계섭 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단과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원북면 구례포 해변에서 기름 제거 봉사를 펼쳤다. 이 밖에 창조한국당도 천리포 해수욕장에 대책본부를 차리고 매일 당원과 지지자 등 100~200여명이 오는 2월까지 봉사를 펼칠 계획이며, 민주노동당<sup>3)</sup>도 의항리 해변에 대책본부를 차리고 백리포 등 전국 지역위원회 별로 인근 민박집에서 잠을 자는 1박 2일 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어 국민중심당은 태안 앞바다 정유유출피해 복구에 적극 참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해안 살리기 범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이 지역 출신 변용진 전의원을 본부장으로 하여 중앙당 및 전국 시도당 당직자와 전당원이 적극 참여해서 기름유출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과 법률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야간수산물 수송시), 서해안 수산물 안심

하고 먹기 운동 등을 벌여갈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이 다시금 태안사고 현장에 대한 자원봉사와 지원 대책에 공감을 표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도 일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구 현장에서 만난 한 지역 주민은 “사고 발생 이후 뜸했던 정치권에서 다시금 관심을 갖고 태안지역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펼쳐주시니 힘이 난다”며 “이러한 관심이 방제작업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여야가 하루 속히 합의에 의한 특별법 제정에도 주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통령 선거와 총선 기간에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선거’라는 전 국민의 관심을 끄는 빅 이슈(big issue)하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의 공약이나 선거 캠페인에 중점을 둔 나머지,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정치권의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재난관리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발견하기 어렵다.

## 2. 지역정치권의 통합, 조정 역할 부족과 지역주민들의 불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를 겪은 태안지역 주민 10명 중에 8명이 정부를 불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시재, 2008: 96-111). 2008년 2월, 20세 이상 태안군 주민 464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80.1%였다. 또한 방제작업과 기름유출사고의 수사를 진행한 해경에 대해서도 신뢰한다는 응답은 15.4%뿐이었으며, 태안읍에 대한 신뢰도도 24.3%에 그쳐 사건의 후속조치를 실행한 정부 당국에 대한 현지 주민의 신뢰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안주민들은 사고의 주요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5.6%만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29.3%의 낮은 신뢰를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1월 23일 3천명이 넘는 태안주민들이 상경하여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역, 삼성본관 건물 앞에서

3) 총선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은 강기갑 의원의 당선이다. 태안신문 인터넷 판에는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의 당선에 태안주민들의 지원 유세가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2008년 4월 9일 밤 전국적인 관심 속에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과 농민후보 강기갑 의원의 대결에서, 농민대표인 강기갑 의원이 182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 날 개표가 시작되면서 강기갑 후보자 측과 민주노동당 등 정당 뿐만 아니라 태안주민들도 경남 사천 지역구의 개표 진행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표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TV를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강기갑 의원의 당선 소식을 전해지자 태안 주민들은 “정말 경사가 났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태안 주민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기름유출 사고 이후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헌신성과 18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기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특히 태안주민들은 그동안 사고 이후 강기갑 의원이 최선두에서 이번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 태안군민들을 대변해온 것에 감사한 뜻으로 선거 막판인 2008년 4월 5일과 6일 사천으로 지원 유세를 나선 것도 또 다른 이유이다.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소속 태안 주민 9명은 4월 6일 삼천포 시장 등에서 ‘강행군 지지유세’를 펼쳐 사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킨 것이 이번 승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집회를 하거나 항의시위를 한 것에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현대오일뱅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한 쌀이 거부되는 일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불만을 가진 주 대상은 삼성이다.

반면에 태안군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에 대해서는 70.3%,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87.9%로 비교적 높은 신뢰감을 보였다. 하지만 지역별·단체별로 만들어진 대책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는 36%에 그쳐 태안주민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불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벌인 환경단체에 대한 신뢰도도 47.9%로 나타나 예상보다 낮은 편이었다.

이시재(2008: 96-111)는 “정부 당국과 언론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심했다”며, “불신의 정도는 노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안피해 주민들 중 59.1%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5.8%는 약 복용이 늘었다고 응답해 사고가 주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이후 생활이 불규칙해졌다는 응답 역시 59.1%로 조사되었으며, 가정 불화가 늘었다거나 이웃과의 불화가 늘었다는 답변도 각각 23.5%, 15.8%나 돼 생활 습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의견 보다 비관적인 의견이 많아 배상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36.4% 뿐이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제도화된 지역정치권은 지방간에 생겨나고 있는 각종 갈등의 양상을 협조와 조정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강명구, 2003: 17). 이번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있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정치권의 주민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활동과 역량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 이후 지역주민 내부에서는 다양한 갈등들이 표출되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갈등은 물위의 빙산에 해당된다. 지역사회에서는 배상금이

3,000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지역간에 그리고 업종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업종별로 대책위가 별도로 구성되어 활동을 한 것이다. 태안군 피해주민들을 대표하는 통합적인 기구라 할 수 있는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가 결성된 것은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4개월만인 4월 7일이었다. 연합회의 구성과정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이 기구에도 태안유류투쟁위원회와 태안군선주연합회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생계비 지원을 둘러싼 갈등도 다양하게 일어났다. 차등지급의 기준을 납득할 수 없었던 주민은 생계비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고, 손가락을 절단<sup>4)</sup>하기도 했다(박재묵, 2008: 69).

이와 같은 기름유출사고라는 절대 절명의 혼란 상태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결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원로, 지방의회 등 지역정치권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태안군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을 통합, 조정하는 지역정치권의 역량 부족을 드러내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름유출 피해 당사자인 태안주민들의 지역을 대표하는 도청이나 군청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높은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와 기준을 놓고 지급시기를 늦추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청남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늦장대처를 하는 사이에 주민들은 생계 걱정엔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주민들이 죽어가고, 등진 뒤 지원하면 뭐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하였다(박재묵, 2008: 69).

### 3. 지역정치권에 대한 지역언론의 비판기능 부재

4) 1월 31일 신두리 전모씨가 “우리 마을의 생계지급이 적은 이유는 뭐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자신의 새끼 손가락을 흉기로 절단하였다.

지역언론은 신문, TV 등 일정한 지역의 모든 언론 매체와 그 활동을 지칭한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역언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지역언론이 지역주민의 욕구와 취향에 맞게 지역사회 문제와 관심을 심층보도하고, 애향심의 고취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김세철, 1995: 81).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언론은 사실보도를 넘어 정책을 비판하고,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이상호, 2005: 226)함으로써 공공부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과 여론을 이끌어가기 까지 한다. 즉, 지역언론은 지역정치권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고, 지역을 통합, 조정하는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 지역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나치게 우호적인 보도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된 지역일간지들은 이완구 충남도지사 및 진태구 태안군수 등의 보도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단체장 띄우기 식 보도로 일관했다(이기동, 2008).

대전일보는 1월 2일 1면에 <태안살리기 빅 이벤트 추진>(3단 기사)이라는 제목으로 이완구 지사가 기름유출 사고 이전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태안을 중심으로 한 이벤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의 경우 이완구 지사가 신년 인터뷰 내용 중 잠시 언급한 내용일 뿐 구체적인 근거도, 계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면에 표제로 뽑아 보도했다. 충청투데이 역시 1월 7일 1면 머릿기사로 <절망의 바다서 '백제 부활'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충청남도가 현재 추진중인 '2010 신백제 해상로드' 사업을 소개하면서 "충청남도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신백제 해상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내용을 보면 이 행사는 이미 2007년 말 일본과 구체적인 협의까지 집행된 사항으로 기름

유출사고와는 무관하게 추진되던 사업을 이번 사고 극복을 위해 충청남도가 마련한 것처럼 보도하였다(이기동, 2008).

## “태안살리기 빅이벤트 추진”

李지사, 빠르면 이달중 세부방안 마련



“모든책대로 추진해야 하지만 잔여구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황해강 제2유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충북성내나두바이 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금로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4월총선과 관련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그는 주권을 패하면서 “도지사는 정치의 행위의 양측을 가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도지사의 본분을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정치문예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상에 맡기겠다”며 또한 여론을 했다. 이종 기자

### 인터뷰 9면

이완구 충남지사는 1일 대전 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서해 안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가 기름 유출사고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태안을 중심으로 빅이벤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당혹스럽고 어렵지만 사태에는 반드시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빠르면 1월 중에 서해안 살리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해 도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모든책대로 추진해야 하지만 잔여구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황해강 제2유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충북성내나두바이 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금로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4월총선과 관련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그는 주권을 패하면서 “도지사는 정치의 행위의 양측을 가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도지사의 본분을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정치문예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상에 맡기겠다”며 또한 여론을 했다. 이종 기자

자료: 대전일보(2008. 1. 2).

<그림 2> 단체장 치책홍보 보도사례(1)

이러한 보도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계속되었는데, 정부의 1차 생계비 지원문제와 관련 마찰을 빚고 있는 이완구 지사를 중앙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지사의 모습으로 보도하는 등 단체장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 보도를 하는 등 보도태도에 문제가 많았다(이기동, 2008).

이와 같이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 조정하는 지역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지역정치권에 대한 지나치게 우호적인 지역언론사의 태도는 이번 기름유출 사고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언론보도를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보통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언론 보도가 곧바로 주민들의 평가기준(김세철, 1995: 83)이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여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보도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의 단체장 띄우기 기사나 홍보성 기사 등을 보도하면서 지역언론의 충실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향후 지역언론은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선도하고, 통합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지역정치 또는 지방정치는 아직 척박하다. 무엇보다도 그간의 지역정치는 그야말로 변방의 정치영역을 구성해 온 것에 불과하였다. 민선지방자치 실시되면서 어느 정도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중앙정치에 종속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들어 활성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시민단체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매우 높은 도덕적 신뢰성을 담보하고는 있으나 아직 지방정치의 중요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지 못하고, 다만 유력한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강명구, 2003: 45). 지역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지역 시민사회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지역정치의 통치를 참여적 거버넌스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시민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전영평, 2004: 165).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환경운동연합 등 각종 시민단체들이 세미나, 공청회,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보여준 노력들은 매우 긍정적이며,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재난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개발사업 및 재난관리 영역에 대한 감시 기능과 대안제시 기능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재난관리 분야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참여가 활성화 되면 사회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위기관리 영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고유영역인 재난관리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유도하거나 인정할

것인가는 재난 정책분야의 특성과 여건, 예상되거나 발생한 구체적 사안, 과거 시민단체의 역할, 관련 시민단체들의 역량과 의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명구. 2003. 지방개혁을 위한 지방정치의 과제. 지방행정. 2003(5). 41-47.
- ▷ 강양구. 2008. 기름유출사고에 뺏긴 삼성...비난어론 자초. 프레시안. 1. 16.
- ▷ 구도완.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 한국환경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김상진.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대한환경공학회지 특집호. 146-152.
- ▷ 김세철. 1995.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지역신문의 보도 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33: 73-105.
- ▷ 김혜선. 2008. 유류유출 피해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문제. 우리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발표논문집.
- ▷ 노진철.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재난관리의 한계. 2008년 한국환경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박동균.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언론보도 및 지역정치권의 대응.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학술세미나. 25-50.
- ▷ 박재욱. 2008. 위험사회로부터 책임사회로. 시민환경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 백두주. 2003. 지방자치와 환경정치: 명지대교 건설을 둘러싼 부산지역 성장정치. 지역사회연구. 11(1). 167-198.
- ▷ 손석춘. 2008. 이견회의 총기. 삼성의 오기. 오마이 뉴스. 1.17.
- ▷ 신승용. 2008. 해양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사례연구 중간보고 자료집.
- ▷ 양기근.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지역 및 지역민의 위기관리방안.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학술세미나. 1-23.
- ▷ 영형철.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충청언론학회-환경운동연합-한국언론재단 공동 심층세미나.
- ▷ 이기동.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지역언론보도의 문제점. 충청언론학회-환경운동연합-한국언론재단 공동 심층세미나.
- ▷ 이상호. 2005. 지방일간지의 지방자치 인식에 관한 경향성과 역할의 모색: 매일신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1: 225-387.
- ▷ 이창현·김성준.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언론

14 한국위기관리논집 제5권 제2호 2009. 12

보도 내용분석 연구. 충청언론학회·환경운동연합·한국언론재단  
공동 심층세미나.

- ▷ 전영평. 2004. 대구지하철 재난대응의 실패 - 지방정치 위기의 관점. 지방정부연구. 8(4): 147-164.
- ▷ <http://www.mediatoday.co.kr>.
- ▷ 연합뉴스. 2007. 1. 17. 외.
- ▷ 태안신문. 2007-2008. 외.
- ▷ 한겨레신문. 2007. 12. 30. 외.
- ▷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 ▷ 뉴시스(<http://www.chosun.com/>).
- ▷ 대전일보(<http://www.chosun.com/>).
-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

**차焜垠** 동국대학교에서 “지방정부의 위기관리행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인적 재난의 사전대비를 중심으로”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1996. 2), 현재는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경찰행정, 위기관리, 민간경비 분야이며, 현재 한국자치경찰학회 부회장, 한국테러학회 부회장, 한국치안행정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한국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2008)”, “CCTV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분석과 캠퍼스에서의 활용방안(2006)”, “대규모 시민참여 혼잡경비의 사례분석과 함의”(2006) 등이 있고, 저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론(2009, 공저, 대영문화사), 경찰학개론(2007 공저, 대영문화사) 등이 있다(police@dhu.ac.kr).

접수번호: #091126-01

접수일자: 2009. 11. 26.

심사완료: 2008. 12. 16.